

지역 매아리

# 고창경제 활성화 '탄력'

### 고창군의회, 제264회 정례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가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64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차남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읍시의회 동화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이경신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농번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과 함께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사용의 적정성, 예비비 지출 적정 여부, 체납액 징수방안, 불응액 과다 발생 사유 등 결산전반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회기동안 군정질문을 통해 크고 작은 군정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으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정추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 조치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조규철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들이 제시하여 주신 대안과 의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보건의료, 아생진드기 전북 첫 사망자 발생 주의 당부

부안군보건의료는 아생진드기로 인한 전북지역 첫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개인위생관리 철저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부안군보건의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군산에서 발발하던 A(54)씨가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감염돼 숨졌다.

A씨는 최근 영당이 부분을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생진드기는 법정 4급 감염병인 SFTS를 옮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를 말하며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38도 이상 고열과 오심·구토·설사 등이 나타나며 혈소판·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성 소인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치사율(20%)이 높아 '살인 진드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물린 상태에 있는 진드기를 핀셋을 이용해 수직으로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해 완전히 제거 후 소독하고 2주 이내 상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관찰 후 증상 발현 시 바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진드기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물리지 않는 것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긴옷 입기, 장갑·장화 착용하기, 기피제 뿌리기, 풀손 피하기, 입었던 옷 빨기, 외출 후 샤워하기 등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전북도 최초 농민수당 지원... 연 60만원 상당

고창군이 전북도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에 나선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 농민들에게 연 60만원 상당의 고창사랑 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조례'를 제정, 이날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전라북도 첫 시행이다.

앞서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민수당 지급을 민선 7기 농업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왔다. 행정, 의회, 이장단, 농업인단체, 여성단체,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민수당 추진위

원회를 구성했고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업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이다.

연 60만원을 농가별로 균등지원하고, 지원금 100%를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연2회 상·하반기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민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의 농가단위로 지원한다. 마을회의와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농의소득을 검증해 올해 하

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활력, 전문문화계승, 경관제공, 토양보전 등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화농민혁명의 후예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며 "차질없는 추진으로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선 '농업·농촌의 공익가치'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문화 보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체결

정읍시가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권로)과 올해 공무원노동조합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해 2월 임금교섭 요구서 접수 이후 수차례 교섭을 통해 임금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협약은 공무원의 임금 등 처우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2018년 대비 기본급 1.8% 인상 △전환 공무원 월급제 적용 △정근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대상자 확대 △유사경력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유진섭 시장은 "최일선에서 묵은일을 도맡아 근무하는 공무원 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도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자"고 밝혔다. 이권로 위원장은 "공무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계기로 시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읍시지부는 2012년 3월에 설립, 현재 조합원 수는 290여 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26일 고령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위해 첫 삽을 떴다.

### 주거와 복지시설 함께 하는 공공실버주택 '첫 삽'

정읍시가 26일 고령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위해 첫 삽을 떴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은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51억원(국비 107억, 시비 44억)이 투입된다.

2020년 완공될 공공실버주택은 연면적 7,821㎡의 규모에 지하 1층과 지상 11층으로 지하층은 주차장이

구성되고 1층은 실버 복지관이 갖춰진다. 또 2층부터 11층까지는 전용면적 26㎡ 규모의 실버주택 88세대가 건립된다. 특히 실버복지관은 공동식당과 물리치료실, 문화센터, 취미활동실 등을 설치해 운영되어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26일 연지동 258-1번지 일원(구.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정읍 공공실버주택 기

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사회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공공실버주택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차질없는 추진하여 65세이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도심권의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농기센터, 청정 햇오디 전국 소비자 '공략'

#### 철저한 수확 관리로 상품성 높여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제철을 맞은 정읍 청정 햇오디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27일 오후 5시 10분 NS홈쇼핑을 통해 방송판매에 나선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방송에서 판매되는 오디는 청정지역인 옥정호 주변에서 생산된 것으로 철저한 재배·수확 관리를 거쳐 품질과 기능성이 뛰어나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저온 피해가 적고 일조량 등 기상여건이 좋아 당도가 높고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나무 열매인 오디는 안토시아닌(Anthocyanin)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우수하다. 또 염증 개선과 피부 탄력 증진물질로 알려진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 함량이 높아 기능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동의보감 탕액편(湯液篇)에 의하면 "까만 오디는 당뇨병에 좋고 오장에 이로우며 오래 먹으면 배고픔을 잊게 해준다"고 기록돼 있다.

또 "귀와 눈을 밝게 한다"는 표현도 있어 예부터 기능성과 영양 가치를 인정받아 오고 있다.

정읍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디 주



산지 401농가(97ha)가 오디를 생산하고 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품질 좋은 오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곰팡이에 의해 과실이 하얗게 변해 굳어지는 균핵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3월 중하순까지 석회를 살포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정읍 오디의 상품성은 더욱 뛰어나다고 전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안전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오디와 복분자 등 정읍 명품 배리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재배관리 지도와 판로개척, 홍보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디 주

### 신혼부부 주거부담 '뚝'

#### 정읍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100만원

정읍시가 주거안정을 위해 지역 내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최근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4~2018년 결혼한 청년세대 부부의 50.2%가 결혼 당시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았다.

주거 부담은 청년세대가 결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연간 최대 100만원씩 5년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읍시의 연간 혼인 건수가 평균 400여 건임을 감안하면 5년간 신혼부부 약 2천여 쌍이 시의 지원을 받아 주택 전세자금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 주택

도시자금 대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로 최대 100만원 연 1회 지급하며 거주요건과 소득요건 유지 시 최대 5년간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되며 올 상반기 접수는 내달 19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적격대상자에게는 7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을 덜어 결혼 기피와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껏 솔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684-9900  
www.gangsanwine.com